

법회안내

이리 관음사(0653)54-1578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2시
학생부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2시30분
○주지 일행스님
창년부법회 매주 일요일 저녁7시
일반신도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합창부법회 매주 금요일 오후2시
선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7시
기초교리법회 매주 수요일 오전11시
~오후1시
대불전법회 매주 화요일 오후6시30분
초하루기도 매월1일(음) 오전10시
지장기도 매월18일(음) 오전10시
관음기도 매월24일(음) 오전10시

호국 원광사(02)796-0230
화요법회 매주
화요일 오전11
시40분
사랑법회 매주
수·일요일 저녁
7시
○주지 한상림법사

인동기도 매월1일(음) 오전10시30분
보통기도 매월15일(음) 오전10시30분
지장재일기도 매월18일(음) 오전10
시30분
관음재일기도 매월24일(음) 오전10
시30분
일요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심학 심장사(0397)73-2487
어린이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3시
학생부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6시
창년부법회 매주 목요일 저녁8시
일반신도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초하루기도 매월1일(음) 오전10시

미디어전사(02)862-5261
경전공부 및 기도 매월 오전4시~5
시, 오후8시~10시(정토삼부경, 화엄
경 등)

해동 동궁사(051)722-7744
성지순례방생법회 매월 5일(음)
화엄신경기모법회 매월9일(음) 오전
10시30분
지장재일법회 매월18일(음) 오전10
시30분
관음재일법회 매월24일 오전10시30분

원각사(02)742-0085
발원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
인당법회 매월15일(음) 오전10시
산행법회 매월18일(음) 오전10시
가족법회 매월 넷째주 일요일 오전
10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금선사(02)981-8078
초하루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법회 매월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법회 매월24일(음) 오전10시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
는 주지스님(대표) 사진과 함께 보
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민족상잔의 6·25동란이 있는지 어떤
47년. 반백년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북한
에 구호식량을 직접 전달하는 등 이제 통
일의 기운이 서서히 뿜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통일은 전쟁 역지역에서 시작됨을
잊어서는 안된다. 잃어 버린 나무 아래서
전쟁을 막고자 하였던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새겨 평화를 전제로한 통일을 이룩
해야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역사적 사명
일 것이다. 불교의 전쟁관은 어떠한지 경
전·어록에서 듣는다. <편집자 주>

■ 전쟁에서 수백만을 정복할 수도 있
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정복한 사람은
정복자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자이다.
<아함경>
■ 칼과 몽둥이 등의 무기를 사용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항상 바른 지혜에
입각한 방법과 수단으로 모든 악을 쫓아
야 한다. <대반열반경>
■ 다른 나라의 군대가 침범해 왔을 때,
그 강악을 잘 판단한 다음에 방편으로서
의 지혜를 써서 평화에 문제를 해결한
다면 이런 사람은 의당 천주(天主=帝釋
天)가 될 것이다. <제법집요경>
■ 적과 싸워서 무기로 해치면 동조족
(銅爪族: 악귀가 구리로 된 손톱으로 할
퀴는 자육)에 떨어진다. <육취윤희경>
■ 싸움터에 나가 한번 싸우고 천명의

적을 이기느니보다 자기에게 이기는 자가
말로 최상의 전사이다. <법구경>
■ 싸움이란 참으로 이상한 것이다. 이
기면 다시 이겨야 하고 항복받으면 다시
항복받아야 하며, 해치면 다시 해쳐야 한
다. <중아함경>
■ 그들을 내 몸과 바꾸어 비교해 보아
라. 산 생명을 죽여서는 안된다. 또 남을
시켜 죽이게 해서도 안된다. <숫티니파타>
■ 보살은 세상에 무기를 만드는 일이
없다. 자람들로 하여금 서로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길

을 가실 때에는 가시, 기와조각이나 돌맹
이, 언덕 따위는 저절로 제거된다.
(보살행요십인신경)
■ 카필라를 노리고 있던 코살라국이
마침내 쳐들어오고 있었다. 부처님은 이
소식을 듣고 길가에 있는 가지만이 앙상
한 고목 밑에서 피야발을 받으며 앉아 계
셨다. 코살라의 왕 비루다카는 말에서 내
려 부처님께 질문 다음 여쭈었다. "부처
님, 우거진 나무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 하나도 없는 앙상한 나무 아래 앉아
계십니까?" 부처님은 답하기를 "천축이

없는 것은 여기 그들이 없는 나무와 같은
법이다." 젊은 왕은 부처님의 뜻을 깨닫고
군대를 돌려 코살라로 돌아갔다. <경집>
■ 무기를 드러내 사람들을 위협해 서
로 해칠 경우에는 교화해서 화합케 하여
정법으로 인도해야 한다. <대반열반경>
■ 6·25전쟁이 한창일 때 강원도 오대
산 상원사에는 방한암스님 혼자 절을 지
키고 있었다. 국군 대위는 스님에게 절을
태우는 것이 불가피한 작전임을 설명하고
어서 몸을 피할 것을 전했다. 그러나 스
님은 조용히 법당 앞에 드러누웠다. 그
렇게 숨을 거둔 것이다. 이에 스님의 깊은
불심에 감동한 국군은 절에 불을 지르는
대신 상부의 명령에 불복종 할 수는 없어
문밖 몇 개를 때려 불을 지르고 돌아갔
다. <방한암스님 행장>

이렇게 들었다

전쟁 칼보다 지혜로 악을 이겨라

신행수첩

백양사 '참사람수행' 결사

'인간주의 초월한 참사람주의'는 병
든 현대문명을 치유하고 새 역사를 창
조하는 지름길이다.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지선)는 '참
사람 수행결사' 참선법회를 7월21일
부터 25일까지 4박5일간 전남 장성군
백양사 참사탈탈사 수련장에서 개최
한다.
참가자들은 조계종 종정을 지낸 서
용(고불총림 방장)스님의 화두와 참
선지도를 직접 받을 수 있으며, 참사
탈 결사운동의 회원이 될 수 있는 특
전도 주어진다.
이번 법회는 인간성 회복과 불국정
토 구현의 서원을 세우고 실천의 마
음을 다지는 자리가 될 것이다. 접수
신청은 7월10일까지. (0585)92-7502

직지사 참선·EQ개발 수련

불교사회복지 까치마을회(총장 법
전스님)는 7월25일부터 31일까지 김
천 직지사 북암 수련원에서 제10회
전국여름수련대회를 개최한다.
'부처님 품안에서 참선으로 효 실
천과 EQ교육'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수련회에는 참선법을 응용한 감
성지수 교육, '부모중경' 독송, 찬
불가배우기, 사물놀이 등의 프로그램
이 마련된다.
자연의 푸르름을 보며 부처님 품안
에서 효행심 함양과 감성지수를 개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02)838-3385

북동포돕기 하루차집

차 한잔의 보시공양으로 어려움에
처한 북동포를 돕자.
영등포구 불교사안연합회(회장 도
성스님)는 2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
시까지 신길3동 서울병의원 칸타나
커피전문점에서 북동포돕기 자비의
하루차집을 연다.
차 한잔 마시며 범우들과 신행담도
나누고 북동포돕기에 일조할 수 있
는 뜻깊은 기회. (02)848-95241

'생활속의 불교문화' 특강

일반인들에게 사찰문화를 소개하고,
그 속에 깃든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
한 공개강좌가 마련된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정영모)은 28
일 유문용 문화재전문위원의 '한국의
불교문화'란 주제로 토요일공개강좌를
실시, 우리 민족의 삶 속에 깊이 스며
있는 사찰문화를 통해 한국인의 정서
와 미의식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자리
가 될 것이다.



◇ 사진은 제9회 까치마을회 전국여름수련대회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레크리에이션 시간에 즐거워하는 모습.

봉은사서 28~29일 '알뜰 재활용시장'

현대불교신문과 종단협 소비자보호회, 맑고향기롭게모임은
재활용 알뜰시장을 연다. 28~29일(오전 10시~오후 5시) 봉은
사(02-545-1448)에서 열리는 이번 알뜰시장은 재활용을 통한
절약정신의 생활화와 환경보호 차원에서 마련됐다.
재활용이 가능한 불교용품 및 생활용품(의류, 세제류, 장난
감, 화장품...)과 가전제품(냉장고, 탈수기...), 먹거리, 우리옷
등 다양한 물품이 전시된다. 현재 알뜰시장에 내놓을 물건을
접수중이다.
■ 종단협 소비자보호회 (02)3452-7485
■ 맑고향기롭게모임 (02)741-4696

또, 7월5일에는 이호관 前 국립중앙
박물관 미술부장이 '금속공예-금·은
입상감공예'를 특강할 예정이다. 주제
와 관련한 영상과 강의로 이뤄지는 이
강좌는 누구나 오후2시 박물관 사
회교육관 강당으로 오면 들을 수 있
다. (02)393-5083.

1백일 10만배 참회법회

1백일간 매일 1천배, 육체적으로는
더없이 힘든 수행이지만 현대사회의
온갖 스트레스와 번뇌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이런 의미에서 방배동 광명성
원(원장 초격스님)은 27일부터 10월5
일까지 1백일간 10만배 참회 정진기
도를 병행한다.
이번 기도에는 선지식 초청법회도
마련된다. △27일 윤희스님(동국대 역
경원장) △28일 민윤스님(봉선사 주지)
△29일 무진장스님(前 조계종 포교원
장) △30일 초격스님(광명선원 원장)

나의 수행일기

나는 모태신앙으로 불교
를 믿었다. 삼귀의도 모르
고 <반야심경>도 몰랐지만
스스로도 불교를 믿는다고
했고 제3자들도 이를 믿어
주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절에 다니고 묻었
는데, 이는 음식을 너무 깨
끗이 먹는 것과 반말을 안
하고 경어를 쓴 덕분이 아
닌가 믿어진다.
학창시절은 물론 경기는
행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한
후에도 난 종교라는 거리를
두고 생활했다. 교리를 몰
라 무지한 탓도 있었지만 불교건 기독교건
교리보다는 학교의 교칙과 직장의 복규정만
잘 지키면 더이상 바랄것도 없고 어느곳에서
나 살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던 것이 86년 7월 감사부 발령을 받으
며 바뀌었다. 나의
인사와 관
련된 지점
이 슬러던
다는 얘기
를 두곳에서 들었다. 나를
대도 수궁이 가기도 했고
나도 앞일이 은근히 걱정
이 되었다.
관계를 잘못하여 판사직
을 그만 두신 큰스님 얘기
도 생각나고, 고의된 과실
이던 직장에 피해를 끼친
잘못을 보고 그냥 모른척
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럴 경우엔 처신
을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
가?
그주 토요일 나는 몇 달만에 조계사를 찾았
다. 이때부터 조계사내의 단행단체에서 기초교
리를 배웠고, 여름 휴가때는 사찰의 4박5일 수
련대회에도 동참했다. 푸카일처럼 경전을 읽고,
참배를 드리고, 삼매에 빠지는 등 교리강
습과 수련회를 통해 불발수행의 가닥이 잡혔
다. 그러던 중 당시 같은 직장에 있던 윤병규
씨가 불교인 모임을 만들자고 제의했다.
생각지도 않고 필요를 느끼지 않은 일이어
서 어정쩡하게 지내는데 손수 인연까지 발굴
해 제시하니, 결국 어쩔수 없이 모임을 만들었
다. 회비를 수납할 통장이 필요해 버려야 할 3
독(탐진치)을 상기해 '진탐치'(1989년 3월6일

‘진탐치’ 통장개설 삼독녹이기

불혹 넘어 만난 불교 '내 인생의 좌표'
현재까지 우리는 비공식 모임을 유지하고 있
다.
지난 5월엔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에 성금을 보내 '발 한공기 나누기'에도 동참
을 했는데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모임의 결성
에는 소극적이어서 안타깝지만, 이것도 부처님
의 뜻이라 믿어진다. 아직까지 나를 포함한 우
리 동료들의 불심이 더 무르익어야 한다는 경
책이실 것이다.
미려하나마 경기는행불자회의 창립을 다시
금 발원하며 불혹을 넘어 만난 불교에 감사드
린다.
(경기은행 여신관리부 수석부부장)



통장 개설)라고 이름을 지
어 오늘까지 그대로 불려지
고 있다.
처음에는 인천 주안의 용
화선원 정기법회(매월 첫
일요일 오후2시)에 동참하
여 송담 큰스님의 법문을
듣고 근처의 다방이나 꼭
집에서 세상이나 얘기를 나누
면서 불심을 다져나갔다.
많아야 10여명, 적으면
2~3명. 그러나 우리는 당
시 개국한 불교방송국에 단
체와 개인의 자격으로 성금
을 보냈고, 교도소와 군부
대에 불교신문과 잡지도 보
냈다. 동료들에게 수련대회 동참을 독려하
고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의 4박5일 출가에 부부
가 동참하는 등 작은 활동은 계속했지만 직장
이라는 테두리 때문에 더 이상의 발전은 없었
다.

그러나
지난해 5
월 비스
할 시기
에 김인
규거사와
전국금용단불교연합회를
소개받아 모임에 활력소가
스며들었다. 김인규거사의
안내로 강화 무에원에서 1
박2일의 법회 등 몇차례에
걸쳐 경전, 묵상, 참선 등
불교를 체험할 수 있었다.
금불련의 실무자들은 금
년 부처님오신날을 기해
우리 은행의 불교인 모임
을 결성하는데 많은 제언
과 조언을 해주었으나 우
리의 뜻이 결정되지 못해



“스스로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불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불교 상품을 직접 제작해온 삼보기업에서 불자의 자부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획상품을 제작하였습니다.

기획상품

- 상품 명 : 신묘장구 대다라니 액자시계
- 제품 사양 : 크기 - 가로 40cm x 세로 40cm
재질 - 원목 사용. 무변금분 사용.
원목위에 사찰명 기재가능.
- 제품가격 : 35,000원

* 원하는는 경전문구로 제작가능. 다량주문시 제작원가로 보급.

삼보기업의 기획 시리즈

부처님자비 광명이 온누리에

주 소 시 구 동 번 지 반

성 명 사찰명 TEL

■ 불자가정 문패 ■

항상 좋은날 되소서

연락처

■ 불자차량 안내판 ■

스님들께서 신도님들께 나누어 드리면 더욱 좋습니다.

● 크기 : 19cm x 11cm ● 재질 : 연철 포맥스 (셀크인쇄)
● 150매 이상 주문시 1개당 1,500원

삼보기업 서울 중구 오장동 69-2 방림 B/D 4층
T)279-2715 F)275-3739

제 1 회 인도불교성지순례수련대회

- 장 소 : 인도 바라나시 한국사원 녹야원
- 참가대상 : 불교도와 불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중·고·대학생 우선)
- 출발 일 : 제 1차 7/22-8/02 제 2차 8/05-8/16 제 3차 8/26-9/06 제 4차 9/13-9/23
- 동 참 금 : 일반 및 대학생 ₩1,299,000 학생 ₩1,249,000(중·고등학생)
* 단, 제4차의 경우 ₩1,349,000
- 모집인원 : 선착순 32명(1회당)
- 신청접수 : 참가신청서 및 신청금(1인당 ₩200,000)
국 민 은 행 023-21-0597-848 예금주 유갑순(보광명)
- 준 비 물 : 세면도구, 필기구, 1인당 쌀 1되 (성지구간 요리사 동행 한정식 제공)
- 문 의 처 : 서 울 도 (02)738-5781(직) (02)738-1303(대) FAX (02)737-7797 E-MAIL : kwj@uriel.net 부산불교신도회 TEL (051)463-1408 FAX (051)441-6992

수련대회 일정표

일지	행 선 지	일 정	초빙 강 사
1	서울/델리	뉴델리 도착	
2	델리/바라나시	입제식 및 초전법륜탑 참배 뫼뫼사당의 입문	녹야원 주지 도홍스님 Ven.Guru Dhammo 인도스님
3	바라나시	인도 불교의 역사(인도 불교 철학 교수) 인도 민족 고전무용단 공연 인도인과의 대화	Prof.s.Tripath 바라나시 고전 무용단 유일 인사 다수
4	바라나시	젠지스강 기트순례 인도 불교의 현황 요가감각 및 실습 티벳 불교 입문 인도 고전 음악 연주회	녹야원주지 도홍스님 Ven.Sasan Lasmi 인도스님 Mr.Yogi 요기전문가 Ven.Lobsang Norbo 티벳스님 바라나시 고전 음악단
5	바라나시/보드가야	부처님 성도지 마하보디 대탑 참배 및 108배	
6	보드가야	예불 및 참선(성도의 배경과 의의) 전정각산 순례	
7	보드가야/파르티	법화경의 성지 라지기로 열취산, 죽림정사 순례	
8	파르티/쿠치니가르	유미경의 성지 바이살리, 부처님열반지, 디미터, 최후왕정지 순례	
9	쿠치니가르/룸비니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 출산 순례	
10	룸비니/스리바스타	카필라바스투, 기원정사, 앙골리마라 동굴 순례	
11	스리바스타/델리	델리 부처님 진신지라 진전 및 문화 유적 순례	불교성지 전문인 동행
12	델리/서울	서울도착	

주 최 : 녹 야 원 (한국사원)
후 원 : 부산불교신도회, 에어인디아항공
주 관 : 성지순례 사업단